

2018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 제1차 (速記録)

- 주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일시 : 2018. 2. 9. (금) 15:07 ~ 16:15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센터프라자 808호

Tel) 02-537-0889 Fax) 02-738-0123

2018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 제1차

- ◆ 일시 : 2018. 2. 9. (금) 15:07 ~ 16:15
-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 ◆ 참석자 (8명)
 - 위원장 : 고희령
 - 위 원 : 한희숙, 이찬희, 김묘정, 이해원, 정혜경, 김이순, 백종오
 - 배석자 : 허대영 팀장, 이석현 주무관, 한기민 주무관
- ※불참위원 : 정해득, 권오영, 김길식
- ◆ 심의안건 (총 2건)
 - 2018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사업대상 추가 선정 자문 : 1건
 - 도봉서원 추가 발굴조사 관련 현상변경 허가 심의 : 1건

(개의)

○ 000 위원

자, 그럼 시간도 지났으니까 시작을 하시죠.

새해 들어와서 오늘 처음 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거의 두 달 만에 뵈었는데 다들 별로 없으셨죠? 요새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겨울답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그 추운데 다니던 생각이 실감나게 났는데 최근에는 안 춥다가 추워서. 하여튼 이 추위에 집안에 보일러 이런 시설들 다 괜찮으셨는지.

그러면 2018년도 첫 번째 문화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2018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사업대상 추가 선정 자문

○ 이석현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시지정문화재 담당 이석현입니다. 2018년도 시지정문화재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20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보수정비 대상 추가 선정을 위한 자문을 하는데요. 앞서 저희가 여름철에 조사를 했습니다. 건축분과는 8건에서 약 5억 4,800만 원 정도 했고 동산분과가 2건으로 해서 2억 6,000만 원해서 총 1차 조사 때는 14억 원 정도를 배정을 받았고요. 이 위원회에서도 같이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총 문화재 보수예산이 2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억 중에서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 2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과하고 동산분과하고 기념물분과를 조사했는데요. 그래서 총 19건 중에서 기념물분과가 8개소가 있었습니다. 조사는 고혜령 위원장님, 이찬희 위원님, 이해원 위원님, 김이순 위원님, 정해득 위원님이 같이 도와서 점검을 해주셨고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인 윤대길 소장님도 같이 했습니다. 사업비 산출을 맡아서 해줬고요. 조사기간은 1월 8일부터 1월 31일 기간 중에 기념물분과 4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보수 및 지원이 필요한 문화재가 5건, 복원 및 보수의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지원이 불필요한 문화재가 총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수 및 지원이 필요한 문화재는 허가바위, 낙성대 삼층석탑, 전주 이씨 영해군파 묘역, 백호정, 월암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원의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안공 상진 묘역, 신경성과 류인호 묘역, 구영릉 석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허가바위가 기념물 11호로 되어 있는데요. 보수정비를 신청해서 조사결과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전체적인 보강 및 보수지침 제시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공법에 대한 것을 거기를 보면 락볼트로 계속 박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박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실되는 것과 낙석 위험성이 있는 암괴를 명시하여 처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안전펜스라든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조망할 수 있도록 점멸식 조명도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동굴 내의 퇴적층에 대해서 간단한 시굴을 해서 그 부분에 유적 또는 유물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청금액은 6,000만 원였고요. 그 추정금액은 1,570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내용은 시굴조사하고 투광등 공사하고 안전펜스와 주의안내판 설치공사 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허가바위인데요. 이게 퇴적층 부분이고 이 속을 봐야 한다고 하는 거고 이것은 동굴 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서에



서 이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이게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펜스를 쳐서 볼 수는 있도록 하되,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낙성대 삼층석탑입니다. 유형문화재 제4호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존처리인데, 전체적으로 석재의 풍화와 물리적 및 생물학적 손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표면 오염물질 제거, 손상부위의 수지 및 강화처리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석탑의 기단부가 현재의 지반보다 낮아서 상습적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탑의 중심으로 침하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자연구배와 배수로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청금액은 2,500만이었구요. 추정금액은 2,600만입니다. 그래서 일부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조사의견으로 해서 가설공사, 세척, 수지에 관한 내용이 나왔고, 지금 이게 삼층석탑입니다. 이 아래가 지금 지반보다는 낮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좀 들려져 있고 하니까 이것을 맞춰서 해야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배수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번 성안공 상진 묘역입니다. 유형문화재 제60호이고요. 주변에 전지작업, 안내판 설치 등을 신청했는데 신청된 사업은 이미 가서 보니까 자체 보수정비가 되어 있고 망주석 재설치는 불필요한 부분이고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여기 떨어진 부분은 자체적으로 붙여져 있고 이 부분들이 정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가기 전에 위원님들 이야기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문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가셨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보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신경선과 류인호 묘역인데요. 이것도 주변정리가 필요하다고 들어왔는데 잔디 식재공사는 필요하다고 보이나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8,140만 원인데 저희가 사실 좀 예산이 있었고 2차는 약간 보수적인 개념이 있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같이 이번에는 정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정하는 데 있어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2019년도라든지 차기연도에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현장들인데요. 그래도 보편적으로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때를 붙이든지 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으나 시급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5번 전주 이씨 영해군파 묘역입니다. 보호 펜스 설치 공사를 신



청한 내용입니다. 전기올타리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접촉 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교체 필요가 현저하다는 이야기이고 멧돼지 출몰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 펜스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9,27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추정금액은 9,200만 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호책하고 설치공사. 현장사진을 보면 그때 눈인가 비가 내려서 사진이 뿌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위험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지선도 보이는데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셔서 안 보이듯이 현장에 가서도 자세히 앞에 가서 봐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멧돼지 출몰을 막기 위해서 설치는 되어 있으나 사람이 괜히 여기를 지나가는 관광객이 됐든 아니면 등산객이 됐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6번 구영릉 석물입니다. 유형문화재 제42호이고요. 이 부분은 보호책 설치 및 사고석 담장 설치를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상태로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시급성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금액이 상당히 컷습니다. 4억 300만 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보시면 석물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다 놓여 있고요. 경계석에서 담보다 높여져 있는데 여기서 요청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이렇게 안전펜스를 쳐서 하겠다는 것이고 굳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뒤쪽 부분을 정리해보겠다는 신청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이 부분도 다 잘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석물 자체도 여기가 온존하게 아직 검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보호책을 해서 이 석물들이 여기에 있어야 할 보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7번 백호정입니다. 문화재자료 제59호이고요. 보수정비를 신청했습니다. 백호정 각자바위 보존처리 및 주변 수목정비, 인공구조물 제거 등의 필요성이 있다. 안내판 설치, 전봇대 이설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신청금액은 3억이었는데 추정금액은 2억 7,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 보시면 현장이 이렇습니다. 이게 문화재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이 주변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문화재라고 해놓고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종로에 상당히 이야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로에서 민원사항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여기 한옥을 지었는데도 이 한옥도 거의 2억 정도 지



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받아서 지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의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산이 있었다면 이 부분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그래서 종로에서의 요청사항은 그겁니다. 지금 이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 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해서 각자바위 보존처리 주변정비를 해서 공사비와 설계비하고 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1안, 2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25억을 맞추다 보니 9,000만 원 정도의 여유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가 여기가 됐든 뒤에서 소개해 드릴 월암동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으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새로이 2019년도라든가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월암동입니다. 문화재자료 제60호인데요. 옹벽 철거 및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월암동 상부 옹벽과 견치석 축대는 제거할 필요가 있다. 주변바위에 대한 녹화정비가 있어야 한다.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여기는 안내판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신청금액은 5,980만 원이인데 추정한 금액은 6,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금액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1안은 가설공사하고 이 전체적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 산정한 금액이 6,300만이었으나 급한 부분, 가설공사라든지 철거 및 주변정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4,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안내표지판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자 하는 것들이 여기에 보면 견치석 석축하고 이 위의 옹벽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바위 위에 이런 상황들이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녹화 부분도 해야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불암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불암산성은 7차 문화재 회의 때 조사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나중에 보고를 받고 그때 예산을 집행하자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9차 때 그에 대한 사항을 동의를 해 주셨어요. 예산집행을 하는 게 좋다. 그런데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는 없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의결을 못했는데, 그때 불암



산정이 신청했던 금액이 2억 9,5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정한 결과는 2억 2,700만을 교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산정은 왜 그러냐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양주시랑 같이 하다 보니까 헬기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거기도 산정이 되어 있고 우리도 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학술비도 같이 나갈 텐데 그에 대한 제경비도 이중으로 나가고 있으니 그 부분도 하나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금액이 2억 2,700만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맞춰진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25억인데요. 건축분과가 12건이고 여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따로 정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념물분과가 12건, 동산분과가 6건 해서 총 30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건축분과가 10억 정도가 되고요. 기념물분과는 10억 3,400만 원, 기념물분과가 제일 많습니다. 동산분과가 4,56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로 부분을 5,000만 원, 4,000만 원 그렇게 같이 배분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산정이 돼서 딱 25억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혹시 제가 보고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예. 이석현 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다니느라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지금 보고하신 게 그러면 결정된 액수예요?

○ 이석현 주무관

예.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교부할 계획입니다. 아직 교부할 것은 아닙니다.

○ 000 위원

그때 같이 다니셨던 윤대길, 전문기사 분이죠?



○ 이석현 주무관

예.

○ 000 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분이 어떤 자기 연구소인가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나요?

○ 이석현 주무관

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분에게 그냥 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 이석현 주무관

예. 올라온 것만. 올라온 것을 제대로 적용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로 짜준 것은 아니고요.

○ 000 위원

오늘 마침 심의건수가 2건밖에 없어서 시간도 약간 넉넉하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혹시 가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못 가보신 분들은 조금 잘 모르시는 것도 있어서, 우선 아까 허가바위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위치. 허가바위가 뭐하는 곳이었는지 그런 기념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이석현 주무관

허준. 그래서 허가바위입니다. 허씨 집안. 그런데 그것도 검증이 사실 필요합니다.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낙성대.

○ 이석현 주무관

관악구에 있습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20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그것은 강감찬 장군과 관계가 있는 탑인가요?
- 이석현 주무관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다음에 전주 이씨 영해군파 묘역은 어디에 있죠?
- 이석현 주무관
그것은 도봉구에 있는 것인데요.
- 000 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묘역이 있었고 전기울타리를 설치했다는 것은 좀 놀랍네요.
- 이석현 주무관
예. 이게 당초에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문중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결정은 저것을 제거하는 거죠?
- 이석현 주무관
제거하고 다시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아예 빼버리는 거죠. 그냥 놓여서 못 들어가게끔 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책을 설치하는 겁니다.
- 000 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산림청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 이석현 주무관
구청 담당자가 현장에 왔는데요. 이것은 문중에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제거해야 할 것 같아요. 말만 들어도 무서워요.
- 이석현 주무관
그래서 저도 호기심이 나서 이것을 만져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전기가 흐르는 것인지. 그냥 여기는 안전표시로 되어 있는데 과연 흐르는 것인지 하는 것을 상상도 해봤는데요.
- 000 위원
펜스는 앞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뒤의 것까지 다 하는 건가요?
- 이석현 주무관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이 부분에 아마 전체적으로 해서 갈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다음에 구영릉 석물 아까 사진에 보니까 옆에는 건물이 있던데 거기는 어디예요?
- 이석현 주무관
홍릉 건너편의 세종대왕 기념관 근처에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구영릉이라는 게 홍릉, 카이스트 거기에 그 옛날 석물이라는 게 진짜 옛날석물이에요, 아니면 그냥 출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 이석현 주무관
그냥 모아놓은 겁니다.



○ 허대영 팀장

원래 세종대왕 기념사업회하고 카이스트 담장 속에 있던 건데 원래 자리에 그것을 이관할 때 석물들을 놔두고 가는 바람에 남아 있던 겁니다. 원래 자리는 아니고요. 원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모아놓은 거죠.

○ 000 위원

세종기념관이 있고 거기에 능이 있었잖아요.

○ 허대영 팀장

예. 원래는 카이스트하고 홍릉 사이에 있었는데 그것을 모아서 세종대왕 기념사업 앞에,

○ 000 위원

그러니까 능은 옮겨가면서 석물은 그냥 남아있는 거죠.

○ 000 위원

지금 헌인릉 자리에 있었던 건데요. 세종대왕기념관을 만들면서 저것을 세종대왕 것으로 잘못 추정해서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희릉 것인데 지금 헌인릉 자리쯤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즈음에 있었던 건데.

○ 000 위원

국정원 있는 곳.

○ 000 위원

예. 그렇죠. 국정원 있는 데 있었던 건데 옛날 70년대에 이것을 세종대왕 것으로 추정하고 잘못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영릉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름을 바꿔야 하거든요. 서울시 문화재 제42호인가 그렇게 되는데.

○ 000 위원

이름도 그렇고.



○ 000 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건데... 완전히 잘못된 거죠.

○ 000 위원

헌인릉 옆에 희릉하고 세종대왕 영릉도 있었는데 나중에 천릉(遷陵)을 해요. 원래 있었던 석물은 그냥 두고 천릉할 때는 새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구 석물들을 땅에 묻었는데 그게 드러났을 때 희릉 것인지 영릉 것인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세종대왕 것이라고 해서 여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 000 위원

그러면 저 석물들이 세종대왕 것으로 추정,

○ 000 위원

아니, 잘못된 거죠.

○ 000 위원

구희릉 것으로. 그런데 어쨌든 오래된 원 석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대로의 가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위치는 저대로 있어도 좋아요?

○ 이석현 주무관

옮겨 가야죠.

○ 000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을 권유라든가 해박야 하는 거 아니에요?

○ 000 위원

사실 제가 이 석물에 대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세종대왕기념관에서 완전히 잘못, 본인들이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기는 한데요. 서울



시에서 문화재의 명칭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어딘가에 옮기면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대단한 석물들을 사실상 옮겨놓을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옮기는 것은 천천히 찾아볼 일이고 명칭변경만 우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지금 단국대에 있는 호랑이 그것은 구희릉으로 다시 명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같이 고쳐서 해야 하는 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물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가 70년대에 발굴을 하면서 세종대왕이라고 하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석물이 좋으면 다 세종대왕 것이라고 무조건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희릉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 이미 학계에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 000 위원

여기에 사고석 담장을 설치해달라는 것은 좀 난센스죠.

○ 이석현 주무관

그래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 000 위원

사고석 담장을 하는 이유는 현장에 가서 추정해보건대 석물 뒤쪽 하부가 다른 것과 경계예요. 그런데 거기 철망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아예 딱 막아서 그런 담장도 일석이조로 해서 분리도 하고 또 석물의 배경도 생기고 그렇다고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담장을 치면 오히려 석물은 많이 안 좋은 상태가 될 것 같더라고요.

○ 000 위원

예. 이 사고석 담장은 실질적인 목적이나 또 여러 가지로 안 어울린다. 안 맞다는 거죠.

○ 이석현 주무관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 000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여태까지의 기념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20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어서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백호정이나 월암동 같은 데도 안내판 설치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안내판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누가 어떻게 만드나요?

○ 이석현 주무관

저희가 표석분과도 있고요. 구청에서 아마 안내판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내판을 만들어서 검토 없이 구청이나 누가 이런 데에서 갖다 세우나요?

○ 이석현 주무관

아니요. 표석분과 위원님들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 000 위원

거기에 포함되신 분들이 있어요?

○ 이석현 주무관

예. 저희가 조건이 예산 배정할 때 위원님들을 해서 하라고 하거든요. 또 더군다나 이 건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올라올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현상변경을 승인을 해 주시면 그대로 그 사람들이 할 겁니다.

○ 000 위원

안내판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내판이 부실하거나 마음에 덜 들거나 또는 어떤 것은 틀린 것도 있고 그런 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그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하시죠.



○ 000 위원

백호정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계획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이석현 주무관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게 종로에서 정비사업을 수립했고요. 정비사업 한 대로 신청한 건데 금액이 부득이하게 후반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빨리 빨리 문화재에 대해서 해달라고 한 요청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2019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기본계획이 수립한 대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저기 백호정 옆에 기와집 새로 한옥 지원해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저게 기념물이 되면 거기에 집을 지으면 안 되지 않았겠어요? 너무 붙어 있던데요.

○ 이석현 주무관

신축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 000 위원

백호정은 저 자리고 옆에는 새로 기와집이 있는 거죠.

○ 000 위원

제가 저 주변을 가봤는데 되게 열악해요. ‘백호정’이라는 정자 터만 저렇게 있고 주변이 주택지구인데도 하나 앓을 자리도 없이 그늘이고 저 부분이 가보시면 되게 열악해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났지만 갔다 온 제 느낌으로는 저기에 집을 잘 짓게 해 줄 게 아니라 공터를 만들어서 백호정을 위한 공간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20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문화재명도 백호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엄격하게 말하면 ‘백호정 터’라고 해야 하는 거죠. 저는 기와집이 백호정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백호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백호정 터’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 000 위원

백호정 터의 각자바위예요. 각자바위가 문화재예요. 저기 바위에 글씨가 쓰여 있어요. 각자바위가 문화재죠. 백호정 각자바위.

○ 이석현 주무관

여기 백호정이라고 딱 쓰여 있거든요.

○ 000 위원

그 옆의 월암동도 그런 거죠. 보내주신 파일을 보기는 봤는데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그 옆에 문화재명 월암동이라고 하는 것도 문화재명이 안 맞아요.

○ 000 위원

문화재명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약칭으로 쓴 거예요.

○ 000 위원

월암동은 옹벽 철거인데 여기에 월암정이 있는 것 아닌가요?

○ 000 위원

아닙니다. 각자바위.

○ 000 위원

월암동의 각자바위예요. 조사보고서에는 제목을 약자로 되어 있어요.

○ 000 위원

저번에 계속 우리가 심의해왔던 곳 아닌가요? 심의해왔던 곳이고 거의 정비가 다 끝난 상태죠?



○ 이석현 주무관

네. 맞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쪽에 정비사업을 하고, 그때 이야기가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위원회에 없었는데 물어보니까 이쪽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같이 하게끔 하는데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비사업 주최 측, 조합 측이 되겠죠. 이쪽하고 다툼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우리가 하겠다. 취소시켜달라고 해서 해당 구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는 우리가 관에서 하고 여기는 나누어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정비해 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현장에서 했거든요.

○ 000 위원

각자바위 글자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 이석현 주무관

여기에 월암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 000 위원

언제한 건지는 정확하게 연대가 추정이 되나요?

○ 000 위원

잘 모르고 조선시대.

○ 000 위원

글씨를 언제 누가 썼는지가 불명확한데 기념물로 정하기가...

○ 이석현 주무관

네. 지나다니다 보면 문화재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딱 있더라고요. 정리를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 000 위원

낙성대 삼층석탑이요. 이번 안건과 별개이겠지만 배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려면 주변에 보도블록으로 깔아놓은 부분에 대한 정비가 수반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러한 풍화라든지 결락이라든지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오니까요. 그런 계획도 같이 앞으로 수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석현 주무관

그래서 이것도 저희 그때 이찬희 위원님하고 김이순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그 말씀도 사실 같이 하셨어요.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자연적으로 “어차피 여기만 맞춰놓으면 뭐하냐. 여기 계속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보도블록도 같이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에 담당자도 와서 했던 이야기가 이것은 누가 한 것이냐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강감찬 그쪽에서 한 거냐. 아니면 공원 관련 부서에서 한 거냐. 그것까지는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지만 점차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여기를 우선적으로 예산은 그러니 이것을 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나중에 검토해서 예산신청을 하든지 해서 아니면 공원부지에서 하든지 아니면 강감찬 그쪽 측에서 할 수 있는지 구청 담당이 이야기를 해보고 정 마지막에 안 될 경우에는 시에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현장에서 담당자한테 주셨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듣기에는 우선 저 배수 문제만 해결하고 점차적으로 그다음 단계를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해야지. 그렇잖아요.

○ 이석현 주무관

그런데 예산이...

○ 000 위원

예산이 물론 그렇지만 다음 단계 하는 것을 계획을 같이 해서 해야지. 이것 따로 하고 그것 따로 하고 하면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 이석현 주무관

그래서 배수로 부분도 이야기는 언급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이야기는 그러면 배수로 보다는 여기 보존처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해봐야 똑같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데 그런데 그것을 기재하시다가 이 부분도 사실은 얘기를 하신 거죠. 근본적인 것은 이게 중요하지만 배수로 설치라든지 이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주셨던 내용입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석물 하시는 선생님들 의견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배수로 문제, 좀 의견을 주시죠.

○ 000 위원

김이순 위원님하고 같이 봤습니다. 저기는 원래 탑이 있었던 기단부가 원래 마당의 높이와 비슷했거나 탑의 위치가 조금 높았을 텐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마당을 만들고 보도블록을 깔 때 그냥 위에서 성토를 하고 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셈이죠. 실제 탑지의 아래 기단부에 비해서 주변에 보도블록을 깔 부분이 아마 수직으로 치면 20~30cm 정도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저 안으로 비가 고일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런데 저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 보도블록을 걷어내야 할뿐만 아니라 지반을 전부 다 낮춰서 정비를 해야 할 상황이니깐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석탑의 상부구조, 노출되어 있는 모든 석재들은 이미 손상이 많이 되어 있고 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 논의하기를 밑에 지반이나 물이 고이는 것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저 표면에 있는 오염물에 대한 처리 위주로 논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하는 김에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얘기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시간도 많이 필요한 일이고 또 사당이 있는 문중하고도 논의가 되어야 할 일이고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시다. 그래서 제안을 해서 전체적인 배수 체계, 지반의 정비 이것은 차후로 하더라도 일단 해당 문화재에 대한 처리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000 위원

원 위치는 맞나요, 이전해온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죠?

○ 이석현 주무관

예.

○ 000 위원

그것도 좀 이상하고. 저 탐 자체의 서쪽이었나, 여기에 각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누가 낙서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탐은 잘 생기고 좋은데 상면부만 없다뿐이지 갖춤은 아주 좋았을 거예요.

○ 000 위원

주변에 보도블록이라도 걷어내고 정비를...

○ 이석현 주무관

예. 그것은 아마 계획을 해서 올 겁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려가면 이것에 대한 연구를 아마 할 겁니다.

○ 000 위원

사진으로 보기에 탐 부분에 손상된 부분도 문제지만 기단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 같이 보이거든요. 그게 더 근본문제인데 그것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을 좀 관악구에 복원계획을 잡아서 준비 하라는 권유를 해야겠네요.

○ 이석현 주무관

저희가 내려 보내면서 의견을 주신 것을 같이 내보내서 내려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현상변경 때 이 의견 받은 것을 접목시켜서 의견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심의가 다시 한 번 올라올 겁니다.

○ 000 위원

그리고 문화재지정 명칭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지 않나요?

○ 허대영 팀장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20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탑 같은 경우도 지금은 유형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유형분과가 기념물분과와 동산분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탑 자체를 동산으로 규정하느냐 어떠냐에 따라서 소관 분과가 달라질 수... 영릉 석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부동산으로 인지되면 기념물분과에서 당연히 심의해야 할 건이고요. 그런데 동산으로 인지되면 이것은 동산분과로 넘어가야 할 건인데 최근에 이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건에 대해서 동산분과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정비는 기념물분과로 올라오고 보호구역 넓히는 것은 동산분과에서 하고 이게 뭔가 두 개 분과가 막 섞여서 있는 상태라 저 탑을 동산분과에서 관할해야 할지 기념물분과에서 해야 할지 이게 먼저 되어야 다음 명칭변경은 당연히 해야 할 건이고요. 영릉 석물도 동산분과에서는 유형문화재라고 하면 다 동산분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화재 종별을 기념물이라고 나가면 기념물분과 것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산분과에서도 기념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유형문화재로 종별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유형분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유형문화재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념물분과에 올라온... 유형문화재가 막 섞여서 이게 약간 정리를 해야, 명칭변경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느 분과에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석현 주무관

저도 담당자로서 그게 좀 헛갈리더라고요.

○ 허대영 팀장

문화재보호법상에는 동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릉 석물도 동산으로 분류되어 있죠. 각자바위만 기념물 쪽으로, 못 움직이니깐요. 그러니까 불상 중에서도 마애불이나 이런 것은 기념물분과에 해당...

○ 000 위원

빠서 옮길 수 있는 것은?

○ 허대영 팀장

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20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좀 혼돈이 있네요.

○ 000 위원

문화재보호법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따르면 되죠. 서울시
에서 조례를 정할 게 아니고.

○ 허대영 팀장

거기는 명확하게 동산으로... 동산이 되다 보니까 동산분과위원회에서는
동산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동산분과위원회 것이라고 하죠.

○ 000 위원

그러면 동산분과에서는 이 명칭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아
직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김이순 선생님이 논문도 쓰셨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제시해서 동산분과에 의견을 낼 필요는 있지 않나요?

○ 000 위원

저는 이런 탑이라든지 석물이라는 것이 실제로 움직임을 전제로 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동산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저
게 움직이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지 원래 탑을 세울 때 그 장소성이 있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 허대영 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는 저도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동산의
규정은 1마력의 힘으로 끌 수 있는 무게면 동산이고 아니면 부동산인데.
동산 같은 경우와 부동산 경우는 차이가 많은데요. 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보호구역이 없었는데 지금은 보호구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
의규제가 들어갔던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마침 공원 안에 있어서 문
제가 안 되는데 민간에 들어갈 경우에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주
변 건축물 규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서...



○ 000 위원

유물을 보실 때 자체만 보시지 마시고 그 유물과 장소를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자기 같은 것은 움직여도 도자기의 의미가 상실되지는 않잖아요. 석물이라든지 탑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장소와 유물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산분과가 아니라 기념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소성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허대영 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문화재보호법 별표에 ‘동산이라 함은’이라고 해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 이석현 주무관

그런데 그것은 동산과 부동산만 나누어 놓은 것이지 기념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별표에 ‘기념물이 무엇이다.’라고 해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 분명히 나눌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건축물도 동산분과거든요. 건축물도 움직이거든요.

○ 000 위원

그러니까 기념물과 동산분과가 갈라지면서 그 개념에 대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두 과에서 하든지 어느 한쪽 과에서 주최가 되든지 해서 그에 대한 심각한 이론적인 개념 정립을 해야 하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마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동산이고 안 움직이는 것은 부동산이고. 그런데 여기 기념물은 어디로 끌고 가려고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석물 빼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접근에 대한 것을 보호법에 있는 개념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그것을 고쳐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 허대영 팀장

낙성대 삼층석탑 같은 경우에는 동산으로 규정해서 동산분과에서 보호구



역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딱 올라오니까 기념물로 되어 있고...

○ 000 위원

그러면 석가탑을 동산으로 구분해서 평양에 갖다 놓거나 서울에 갖다 놔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하여튼 문제는 참 여러 가지겠네요.

○ 허대영 팀장

정리를 좀 해야 할 문제 같고 문화재청과 논의를 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자문을 구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 이석현 주무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자문한 것들은 여기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교부가 되어도 거기서 보셨고 하니까 동산분과에서 다시 하면 “이게 뭐냐?”하고 또...

○ 000 위원

그런데 일단 낙성대가 유형문화재 제4호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 있는 삼층석탑이잖아요. 그러면 낙성대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념물이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 000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위 그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동굴. 이것도 문화재 명칭으로 치면 허가바위라기보다는 ‘허가바위동굴’이라든지 ‘허가바위그늘’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표면에 노출된 암석의 풍화상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만 조사가 되어 있지 그 안에 동굴의 생김새라든지 동굴의 규모라든지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규명되어야 할 것들도 많은데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밀 진단해서 전혀 지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여기에 기록으로 남겼다가 거기에 주문하셨으면 좋겠어요.



○ 이석현 주무관

예. 이게 아마 말씀하셨던 대로 현상변경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 이것에 지금 안전진단사항도 조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안전진단에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구조체, 단순히 그냥 바위 정도로 생각해서 보수방법도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문화재인데 실제 문화재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단순히 낙석이 떨어지고 시민들이 피한다는 형태로 보고서가 짜여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아직 안 왔다고 하니까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라고 하셨고 이 건과 관련해서 여차피 또 저희가 교부하면서 그 부분을 구두로 주시를 하고요. 의견을 주셨던 것은 그대로 내려가니까 현상변경을 올릴 때 또 한 번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 000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석현 주무관

그러면 이 건 보고드린 대로 교부해서 원활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000 위원

예.

■ 도봉서원 추가 발굴조사 관련 현상변경 허가 심의

(도봉서원 발굴조사 관계자들 입장)

○ 도봉구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 문화체육과 민병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도봉서원 보존정비를 위한 추가 발굴조사 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20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조사개요를 보시면 저희가 올해 추가 조사할 면적이 967.61㎡로서 작년에 발굴조사 했던 4,464.3㎡보다 범위는 작지만 이 부분을 왜 추가발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추가 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애초에 저희가 도봉서원 터를 발굴한 목적이 도봉서원 복원을 위해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서울시 문화재건축분과 쪽에서 2014년도까지 발굴조사 내용이 도봉서원의 복원과 연관성이 있는 유구가 나온 게 없다고 해서 부결이 됐고 작년도에 저희가 추가 발굴조사를 했는데 5호 건물지 쪽에서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기단까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단을 타고 와서 쪽 내려오다 보면 이 부분이 올해 추가 조사할 지역인데 이 지역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도봉서원의 강당이 있을 것 같다고 추정해서 올해는 이 지역을 추가 발굴하겠다고 현상변경 심의를 신청한 건입니다.

보시면 이게 통일신라시대 기단과 고려시대 기단을 확인해 주는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있는 작년도에 발굴조사 때 영국사 해거국사비가 발견된 겁니다. 이것은 탁본이고요.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2012년도 발굴조사 때 청동유구가 나온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도봉사’라고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2012년도 때 발견됐던 석각 비편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석각 천자문하고 석경이라고 판단이 돼서 나온 부분이고요. 석각 천자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나온 유적입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발굴 조사 관련해서 자문은 총 4번을 거쳤고요. 4번 동안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영국사와 도봉서원의 관계를 좀 더 규명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중심지역 뿐만 아니라 총 2021년까지 발굴조사계획을 잡았는데 추가 조사 1지역, 올해 발굴할 조사지역이 강당 등 중심 건물지로 예상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이 추가 조사지역 2지역으로 잡았는데 사면 경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발굴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 조사지역3으로 잡았는데 조선시대 서원 지원시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사용했던 학생들이 숙식을 했던 기숙사나 이런 자리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이 도봉서원 탐방로 쪽하고 계곡부 쪽인데 이쪽 부분을 무우대로 추정하고 있어서 2021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총 네 군데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조사 1지역만 발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은 저희가 추가로 발굴을 해봐야 강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20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당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상변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 000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발굴조사 한 것도 보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가발굴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고 그 결론에 따라서 올해 추가발굴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 도봉구 관계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바로 앞의 그림에서 나왔던 분홍색 라인이 이미 되어 있는 거죠?

○ 도봉구 관계자

현재 작년에 발굴된 지역이 보라색 라인입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입니다.

○ 000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네 부분은 2021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요.

○ 도봉구 관계자

네 부분이 북쪽 배면석축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호조치 역할을 위해서 저희가 추가조사 2지역으로 잡아놓은 거고 3지역 건물지 기단 바깥쪽 부분, 동쪽 부분을 크게 잡은 거고 그다음에 4부분이 탐방로 지역이랑 계곡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기획을 하고서는 발굴조사는 마무리 수준으로 가는 건가요?

○ 도봉구 관계자

저희가 최종목표는 국가사적 승인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지역



까지 발굴을 하고 나서 국가사적 승인, 저희가 추가조사지가 1지역하고 올해 기회가 된다면 국가사적으로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고요. 4지역까지 다 완료가 되면 이쪽에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 복토를 다시 할지 이 지역을 관광상품으로 활용을 할지는 아직 계획은 정확하게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 000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

몇 번째 추가발굴을 하시는 겁니까?

○ 도봉구 관계자

지금 발굴조사로만 봤을 때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 시발굴조사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발굴조사를 한 번 하고 올해까지 하면 세 번째 발굴조사가 됩니다.

○ 000 위원

전체적인 발굴조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액션플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추가발굴을 하는 겁니까?

○ 도봉구 관계자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발굴조사 목적은 도봉서원의 복원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작했던 것이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2013년~2014년도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들어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까지 발굴유구가 도봉서원을 복원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유로 부결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도봉구청에서 2016년도에 도봉서원 조기 복원이라는 계획을 따로 세워서 작년에 발굴조사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 000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매번 용역을 넓혀가면서 시간이나, 층위도 마찬가지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중요한데 계속 추가발



굴, 추가발굴 해가면서 시간... 물론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지만 또 추가발굴 승인을 요청하면 사실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마스터플랜이나 무슨 액션플랜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완료를 하고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발굴하고 정비계획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이런 논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매번 여기에 했으니까 다음에는 여기 하고 다음에는 이쪽도 해보고 이런 것보다는 계획이 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도봉구 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 000 위원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던데요. 그 안에 발굴조사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 000 위원

그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 000 위원

2013년도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세워졌네요.

○ 도봉서원 발굴조사단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013년도에 수립됐던 계획은 기존에 있던 도봉서원 복원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고요. 이번 2017년도 발굴조사가 됐던 것은 아까 도봉사 명문이라든지 하층에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도봉서원 복원도 부결이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하층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작년에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 조사와 함께 학술대회가 도봉구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학술조사를 통해서 그때 보존정비계획 안에 대해서도 일차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추가 발굴지역까지 도봉서원의 전체 그다음에 하층에 있는 영국사까지 전체적



인 플랜을 가지고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000 위원

발굴 장소는 현재 어떻게 남아있어요?

○ 도봉서원 발굴조사단

2017년도 조사지역은 그 부분을 완전히 복토하면 이번에 추가 조사하는 부분만 섬처럼 발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 자문회의 때 임시 복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과 보온재로 덮어서 일부 흙으로 얇게 복토해놓은 상태입니다.

○ 000 위원

지금 추가 조사할 곳이 제가 언뜻 보기에 토사를 적치할 곳이 없어서 남겼던 것 아닌가요?

○ 도봉서원 발굴조사단

아닙니다. 그것은 2012년도 발굴에서 전체, 그러니까 원래 2011년도 시굴 조사를 하고 2012년도에는 시굴조사 결과 유구가 없다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놔두고 위쪽에 대한 발굴조사만 했고 그래서 저희도 하층 조사를 할 때는 전 조사결과에 따라서 유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외에 하층 조사를 해야 할 곳들을 최소화 잡아서 조사했던 것인데요. 그 안쪽으로 강당건물 기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전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인 것입니다.

○ 000 위원

수행기간은 그대로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하시나요?

○ 도봉구 관계자

예. 저희는 계속 유적의 발굴조사 연속성을 위해서 불교문화재단과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지금 맨 뒤에 나오는 향후 전망에 있는 내용들이 보존 정비계획, 향후 활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20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용계획 이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학술대회를 하셔야 나온다는 거네요. 보통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발굴부터 출발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발굴을 해보고 발굴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그때 세우신다는 건가요?

○ 도봉서원 발굴조사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봉서원과 영국사라라는 상하층 관계에 있어서 이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결국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그것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층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것들의 대강을 확인하고 나면 그것들을 가지고 학술대회를 통해서 조사 성과와 그 의의 그리고 보존정비,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학술대회를 통해서 도봉구에서 하고자 합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올해 발굴을 하면 웬만한 토층은 파악이 다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도봉서원 발굴조사단

예. 일단은 중심영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 조사를 통해서 남쪽 계곡부를 제외하고는 동서북쪽의 경계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를 하게 되면요.

○ 000 위원

중심사역은 이번 조사로써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시는 거고요.

○ 도봉서원 발굴조사단

예. 물론 추가로 북 지역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보호수가 있는 부분이 중요한 규명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남쪽의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인하게 되면 큰 배치 상황은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층위상 제일 상층에 도봉서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층 내려가다 보니까 영국사가 확인이 됐던 거였고 그래서 영국사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또 추가 발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통일신라시대 층으로 확인했다고 메인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통일신라 층까지 확인을 하는 건가요?

○ 도봉서원 발굴조사단

현재 목표는 통일신라시대 층까지 내려갈 계획인데요. 통일신라시대에 있는 영국사 내지는 그 건물지의 규모가 가장 북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남쪽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층이 없는 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영국사의 북쪽에서부터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다가 점차 혜거국사가 오시면서 늘어났던 그런 배치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유림들하고 조계종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지금 그 명분 측은 조계종 쪽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여쭙보는 거예요.

○ 도봉서원 발굴조사단

저희는 일단 종단에서 설립한 문화재조사전문기관이기는 합니다만, 문화재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매장문화재 조사전문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가장 중심으로 견지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이 문제가 유교계와 조계종과의 대립적인 부분으로 많이 보이고 있는데 최대한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영국사가 폐철되고 그 위에 도봉서원이 세워졌지만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명확히 알고 그를 통해서 올바른 보존정비 방안을 수립한다면 결국은 그 상생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유림도 이 장소만을 고집하지 않는 부분이 작년 저희가 네 차례 정도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림 분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방문하셨고요. 그래서 도봉서원 밑에 있는 영국사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도봉서원의 복원을 반드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라는 정도까지도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까지 일단 변화가 있



있고요. 종단에서는 현재 영국사 자체가 이제 겨우 확인이 실마리가 찾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학술조사가 명확하게 돼서 실체를 먼저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종단의 입장입니다.

○ 000 위원

구의 입장은 어떤가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 도봉구 관계자

우선 위원님들이 아까 걱정하셨듯이 조사기관이 불교문화재연구소이기 때문에 유림 측에서 아마 오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도봉구에서 이 지역이 영국사가 나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불교문화재연구소에 맡긴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입찰을 거친 상태에서 두 번의 유찰이 됐고 저희가 마지막 못해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성문화재연구원하고 불교문화재연구원이 1차~2차 입찰 때 한 번씩 같이 들어왔는데 한성문화재연구 쪽에서는 그쪽에서 조사를 안 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불교문화재연구소가 한 것이었고 유림 측 이사 분들이나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교’라는 글자 하나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기관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조사 1지역 부분이 도봉서원 지역 소유지가 한 필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서도 다 받아온 상태이고요.

○ 000 위원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봉서원 발굴조사 관계자들 퇴장)

자,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은 아까 그대로 통과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건도 추가 발굴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20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니까? 지금의 상황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건 다 처리가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20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